

“재해 예방 중심”...담양형 재난관리 표준모델 마련

郡,1천230억원 확보 피해 복구 총력
‘사전 예측·즉시 대응·사후 개선’ 구축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등 전면 정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군이 총 1천230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며 생계 회복 지원과 함께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담양형 재난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공공 223억원, 사유 186억원 등 총 409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신속한 재난관리시스템(MDMS) 입력과 중앙부처 사전 대응을 통해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167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63억원으로 배정됐다.
공공시설 복구는 ▲담양군 관리 구간 245곳(745억원) ▲전남도 관리 구간 6곳(412억원) ▲군부대 4곳(10억원) 등이며 현재까지 216억원(17.5%)이 집행됐다.
국비 84억원은 도로·소하천 복구에 특별교부세 75억원(자체복구 35억원·지방비 매칭 40억원)은 긴급 복구에 투입됐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총 63억원 중 57억원이 3천425세대에 지급돼 주택·상가·농작물 피해 주민들의 생계 회복을 돕고 있다.
군은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 예산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복구 재원 마련도 병행했다.
지난 7월 추진된 ‘폭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은 목표액 1억원을 조기 달성해 총 1억4천만 원이 모였으며, 피해 지역 응급 복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이번 복구 목표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복원’에 두고 재해예방 중심의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습 침수 지역은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 높이를 높여 유수 용량을 15배 이상 확대하며, 콘크리트 옹벽과 생태블록 사면을 병행 설치한다.
또한 농업용 배수관 직경을 확장하고, 펌프장에는 자동제어 및 전원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해 정전 시에도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는 낙석방지망과 사면 보강공, 교량 하부에는 세굴 방지 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배

수로·하천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군은 이번 복구 과정을 계기로 ‘담양형 재난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마트 경보체계,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 지원, 주민 재난안전 교육 등을 결합해 ‘사전 예측 즉시 대응 사후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는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 재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신속한 대응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진군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센터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진군류바이오상용화센터 운영 본격화

준공식...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군류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확보

장흥군은 “최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진군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진군류바이오상용화센터’는 총사업비 237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건축면적 3천48㎡ 규모의 연구·생산 복합시설이다.
센터에는 ▲진군류 군사제 배양·추출·공정 ▲기능성 평가 ▲원료 품질관리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반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全週期) 산업화 지원 체계가 구축

돼 있다.
총 54종 100대의 생산 및 실험 장비가 도입돼 진군류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향장품 ▲대체육 및 발효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하다.
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군류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산업화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유망기업 11개 사가 시설 연계 및 공동활용을 희망했으며 군사제, 발효기술, 기능성 소재 분야의 추가 소재 연구도 활발히 진

행 중이다.
센터는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문, 인증·시험분석 등을 제공해 지역 군류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군류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 거점화, 지역 군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미래형 바이오경제 실현에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센터 준공은 장흥이 보유한 진군류 산업 연구 기반과 바이오식품산업 단지의 인프라가 결합된 결실”이라며 “진군류 소재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 군류 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산업체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 나로도 삼치회’ 고향기부제 답례품 인기

가을 대표 별미...3kg이상 선별·배송

고흥군은 20일 “가을철을 맞아 ‘나로도 삼치회(사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삼치회는 10월부터 제철을 맞아 살이 오르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고흥의 대표 별미로, 특히 청정 해역 나로도에서 당일 조업한 대삼치(3kg 이상·70cm급)만 선별해 손질·포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 경매장에서 직접 선별된 삼치는 숙련된 요리사의 손을 거쳐 신선한 상태로 즉시 포장·배송된다.
답례품 구성은 삼치회 700g(2인분)과 함께 제



공되는 특별한 수제 양념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회 한 상’을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냉장 포장과 아이스팩을 동봉해 전국 어디서나 신선한 상태로 받아볼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삼치회는 단순한 회가 아니라, 청정 해역 고흥이 자랑하는 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계절 한정 별미”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들이 고흥의 신선한 맛과 정성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52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벨리 리조트 숙박권(5명), 투썸플레이스 모바일 쿠폰 2만원권(20명), 다이소 모바일 쿠폰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고흥군은 삼치회를 비롯해 수호천사미(쌀), 유자청·한우·전복·김 등 지역 농수특산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역사문화, 아동·청소년 복지, 어르신 돌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박현진 기자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보성군 ‘초유은행’ 운영

면역력 강화·폐사를 감소 기대

보성군은 20일 “한우 송아지(사진)의 면역력 향상과 폐사를 줄이기 위해 ‘초유은행’을 운영, 지역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초유은행’은 젖소 분만 후 1-3일간 생산되는 초유를 살균·냉동 보관해 필요한 농가에 신속히 공급하는 체계적 지원사업이다.
초유에는 일반 우유보다 면역항체(IgG)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으며 송아지가 출생 후 6시간 이내 충분히 섭취하면 질병 예방 효

과가 탁월하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젖소 농가로부터 초유를 확보한 뒤,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IgG 검사·살균 처리·소분 포장·냉동 보관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관리된 초유는 필요 농가에 주 1회, 400㎖ 3병씩 공급돼 송아지가 안정적으로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홍배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장은 “초유은행 운영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유 섭취 부족은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이라며 “체계적인 초유 공급으로 송아지 생존율을 높이고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 ‘프라이빗 디너 파티’ 참가자 모집

24일까지 선착순 150명

여수시는 20일 “오는 30일 종포해양공원 주무대 일원에서 ‘특별한 날, 특별한 밤 프라이빗 디너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사에 앞서 24일까지 참가자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라이빗 디너 파티’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가면을 쓰고 식사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행사는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며 ▲뷔페식 만찬 ▲클래식 공연 ▲베스트마스크상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뷔페 만찬, 맥주·와인, 기념품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만 19세 이상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여수시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YeosuN)’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5천원, 1계정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061-659-386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색적인 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여수의 낭만적인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선선한 가을밤, 여수의 매력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세대 화합의 장” 화순군민의 날 성료

군민의 상·불꽃축제 등

100년 미래 비전 공유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이 군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열렸다.
‘세대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 진정한 세대 통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 비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1부 ‘명랑운동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트랜스포머 공연, 페이스페인팅, 낙서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명랑 경기 대항전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2부 행사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가요, 부채춤, 버꾸춤 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진 기념식은 군민의 상 시상(사진), 기념사 및 축사, 군민헌장 낭독, 기념영상 상영, 축제 개막 세레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화순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 오방록 전 화순군의회 의원, 지역사회봉사 부문 구제길 세종요양병원 이사장, 교육문화관광체육 부문 박구 화순군 북신팀 감독, 산업경제 부문 서병연 도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각 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3부 ‘군민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13개 읍·면 대표팀이 참가한 노래자랑이 열려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비창으로 군민과 함께 앞으로 100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5억 추가 신청 가능

광양시는 “최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2024년 성과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전남 10개 관리지역 중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특별교부금 집행·관리 ▲교육 혁신 추진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발굴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광양시는 ▲첨단산업 연계 인력양성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광양만권 진로진학박람회 ▲글로벌 국제교류 사업 등 지역 산업 기반의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K-첨단산업 인재양성 선도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는 2025년 특별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이에 광양시는 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말까지 신규 사업을 발굴·신청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 기자